

정례브리핑

2020.6.15(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관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민주당 6.15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낮 12시에는 도라산역에서 진행되는 문익환 시비 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오후 5시 30분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진행되는 6.15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차관입니다.

차관은 오늘 오전 11시에 도라산역에서 진행되는 문익환 시비 제막식에 참석하며, 오후 2시에는 파주시 소재 민족화해센터 평화순례자갤러리에서 진행되는 6.15 20주년 기념 서예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후 5시 30분에는 통일전망대에서 진행되는 6.15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강화군을, 6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는 김포시를 각각 방문하여 대북 폐트병과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살포 행위를 차단 중인 경찰과 해경의 대응태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행위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입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9회 대학·대학원생 통일논문 홍보영상 공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6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39회 대학 및 대학원생 통일논문 홍보영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통일논문 공모전은 198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대학사회의 남북관계와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연구 분위기를 확산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정부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6.15 선언은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함께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6.15 선언의 정신 위에서 진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정부는 6.15 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연락사무소 철거를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나 대응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남과 북은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 방금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지금 상주인원이 없는데 만약에 철수하겠... 북측에서 철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인은 북측에서 그러한 행동을 만약 하게 된다면 북측에서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실제 철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철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통일부가 관련해서 어떤 대응방안이나 마땅한 대응책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관련사항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상황을 직접 예의주시하면서 만전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K-방역의 위상을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또 반면에 이 남북관계에서는 하나의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북한... 아니, 중국과의 국경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경제... 개네들의 경제 숨통을 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국경봉쇄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경 봉쇄의 완전한 해제에 관한 소식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부 필요한 물자들이 오고 간다는 동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지난 3~4월에 북한이 중국에 '국경을 다시 열고 경제 원활하게 다시 한번 하자.' 이런 요청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5월에는 친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경제를 원활하게 하자.' 그런 중국 간의 협의가 있었고 6월 초부터는 국경을 다시 열고 하겠다는 소식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통일부가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답변> 저희도 관련소식을 보았고요. 그 소식통 인용으로 해서 '6월 초 국경 완전해제'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관련당국, 양측의 관련 당국이 공식발표한 점이 없고 해서 저희도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